

육 계 생 산 유통 상 의

I. 서 론

60년대 후반기에 국민 소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육류 수요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반해서 육류의 주 공급원이었던 한우는 연간 약 30,000 두씩 감소되어 왔고 돼지 또한 정체현상을 던치 못하는 실정에서 부로일러가 자연히 육류공급자원으로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됨에 따라 육계생산업은 자금 회전이 빠르고 소자본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 기호성이 타육류에 비해서 유라하다는 조건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1960년대 전반기는 주로 채란용 폐계와 초생추 숫병아리가 주공급원이었으나 1965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전용육계(하이부로)와 겸용종(세미육계)에 의한 부로일러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여 1969년말까지 4개년간 525%의 성장율을 보여 년평균 132%나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생산에 쓰여진 부로일러 사료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었음은 물론 공급면에 있어서도 수요에 큰차질이 없었다는 점과 육계전용품종의 도입 역시 육계 산업발전을 촉해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용 육계의 경우에는 8주시 체중이 1.8kg 내외, 사료효율 2.5정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로일러 생산업자들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고 그 애환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생산방법이나 기술에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유통생산 과잉등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축산정책을 다루는 정부당국의 빈약한 유통정책에도 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부로일러법에 편승하여 거의 기본적인 태세(기술적, 경제적)를 갖추지 못한 사이비 축산업자들이 대거 부로일러 생산업에 참여하여 결국 자살행위를 자초하고 만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 축산인들은 남이 해서 돈을 버니까 나도 해 본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인 기초위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 농업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육계의 유통구조의 맹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 제 점 과 개 선 책

한 인 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II. 육계 생산상의 문제점

1. 계절성

우리나라 육계의 사육은 계절에 따른 변화가 심한데 입추량의 최고는 5~6월이며 소비량의 최고기는 7~8월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이와 같은 육계 사육의 계절성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육계소비 관습과 아직 육계소비가 국민 일반에 널리 보급되지 않은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소비 관습은 국민소득 향상과 육계의 가격이나 영양면에서의 유리성이 인식되어 감에 따라 점차 변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소비의 계절성 때문에 육계생산 농가의 평균 계사가동율은 54%정도 밖에 안되며 가동율이 80%이상되는 농가는 전체 업자의 8%에 불과하다고 한다. 년중 계사 가동기간이 11~12개월 되는 농가가 32%에 불과하여 고정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안정된 생산계획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생산비

병아리와 사료의 선택 및 구입은 육계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수원지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이부로인 경우 수당 초생추대가

60~72원이며 세미부로의 경우는 30~40원으로 이 병아리의 구입비가 생산비에 21%를 점하고 있다. 사료구입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농가 사료상인으로 부터 kg 당 평균 43.41원에 구입하고 있으며 월 평균 100톤 이상의 사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평균 42.26원으로 사료 공장으로 부터 직접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산비중 61%로 대단히 높으며 기타 노력비나 시설기구의 비용은 5~6%로 육계생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므로 부로일터 생산비 절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좋은 품종의 병아리와 양질의 사료를 싸값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부로일터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1) 병아리 품종개발 2) 사료품질의 개선 및 사육법개선을 통한 사료효율 증진 3)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하가 큰 요인으로 알려졌다.

혹자에 의하면 국내 하이 부로중에는 F₁에서 상당한 세대를 거쳐 육종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소위 재탕 3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양심적인 부화업자들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며 앞으로 관계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개선될 날이 있기를 고대 하는 바이다.

한편 사료생산에 있어서도 최근에 괄목할 만